



회복국면 맞은 싱가포르정유업계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최근 싱가포르 정유업계는 설비가동률이 점차 회복되면서 호황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55%까지 떨어졌던 싱가포르의 4개 정유공장의 평균가동률은 현재 70%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싱가포르 정유업계는 지난 2월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固定油價制를 도입 실시함에 따라 감소하면서 商社나 트레이더의 위탁정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정유업계는 民族系의 SPC(싱가포르石油)와 셸, 모빌을 비롯하여 메이저(국제석유자본)계의 5개 정유회사가 중심을 이루며 하루 1백만배럴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86년의 평균가동률은 70% 수준이었으나, 지난 3월에는 55% 수준까지 떨어졌다.

OPEC산유국들이 지난 2월부터 固定油價制를 채택하면서 원유의 네트백거래(석유제품의 실제가격에서 정제비용을 뺀 원유가격결정방식)을 폐지한 것이 가동률저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네트백방식은 商社나 트레이더등 정제를 위탁하는 쪽에 일정한 마진의 확보를 보장해 주었다. 석유제품市況이 악화되더라도 원유도 이에 맞추어 싸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로 바뀌면서 석유제품가격에 비해 오히려 원유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이 악화되자 트레이더의 위탁정제물량이 급속히 줄어 들었다.

싱가포르 정유공장에 있어서 위탁정제는 최대의 收入源이다. 固定油價制의 채택과 네트백거래 폐지에 따른 위탁정제물량의 감소는 셸이나 모빌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商社나 트레이더들에게 위탁정제비의 인하를 제시할 경우, 오랜 고객인 中兪이나 말레

이지아로부터 반발을 사고, 또 가격인하요구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고심해 왔다.

여기에서 궁여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收率의 조절이다. 보통 원유의 性狀에 따라 석유제품의 收率이 결정되지만, 정유공장에서 2차설비를 이용하면 다소의 조절은 가능하다. 重油등 重質油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나프타나 輕油등의 收率을 높일 경우, 商社나 트레이더로부터 주문을 늘릴 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응급조치로 일단 위탁정제물량의 감소는 멈췄으나, 현재의 活況은 이와같은 「自助노력」이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현재 싱가포르 정유업계 活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日本의 出光興産과 카타르이다.

出光興産은 OPEC의 18달러 固定油價制를 지지한다는 제스처로 지난 3월 5일에 구매한 두바이産 원유 6백만배럴중 3백만배럴을 싱가포르에서 정제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르원유는 가격이 비싸서 지난 3~5월중 수출이 매우 부진하게 되자 카타르는 싱가포르에서 위탁정제하여 여기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입찰형식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의 네트백판매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제품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商社와 트레이더들은 위탁정제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